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31:5-8
 2026년 3월 15일 오전 11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 주역 도우소서 >

오늘 본문은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던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앗수르라는 초강대국이 공격해 오자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사 31:1).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이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애굽으로 재물과 보물을 보내 동맹을 체결하러 사신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2절). 악한 일을 돕는 자도 재앙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신처럼 떠받들고 애굽의 말을 영처럼 떠받드는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3 절).

1. 시온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립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4 절). 사자가 여러 목자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시온을 위해 직접 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펴고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5 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자와 어미새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물과 보물을 들고 위험한 땅 네겟을 통과하면서까지 애굽에 내려가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출 19:4).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떠오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신 32:6).

배은망덕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애굽에게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며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허나 애굽은 앗수르 군대가 유다 땅에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고도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의 모든 땅이 앗수르의 말밭굽 아래 유린 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크고 견고한 성인 라기스도 있었습니다. 산헤립은 라기스 공성전에 직접 참가하였습니다. 라기스 성을 공격하기 위해 공성용 램프(ramp),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라기스 유적지에 원형 가까이 보존되어 있는 유물입니다.

또한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Austen Henry Layard)가 1845년부터 시작된 니느웨 발굴에서 발견된 ‘라기스 전투 부조’가 대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라기스 전투 부조는 길이가 20 미터에 달하는데, 니느웨 왕궁 한 벽면에 붙어 있던 것을 떼어서 영국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 부조에는 시간순으로 공성전 장면, 성벽 돌파 장면, 처형 장면, 포로 행렬, 산헤립이 왕좌에 앉아 전투 결과를 보고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현대 처형 장면을 보면, 앗수르 군대의 잔혹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 밖 언덕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뾰족한 말뚝에 사람 몸을 꿰어서 높이 매달았습니다. 말뚝이 향문에서 입으로 관통하기도 하고, 옆구리나 배를 관통하기도 하며, 등을 관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뚝 처형 방식은 유다에는 없는 사형 방식으로 이것을 처음 본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또한 라기스 성의 함락과 처형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두려움으로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라기스에서 27 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 고대 군대의 행군 속도로 이틀이면 당도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급하게 산헤립에게 항복을 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앗수르 왕이 곧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왕하 18:14). 그러자 산헤립은 은 300 달란트와 금 30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2. 말씀을 불신할 때 치르는 대가

1 달란트는 약 34 킬로그램으로 은 300 달란트는 10 톤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현재 시세로 800 만 달러입니다. 허나 고대에는 은의 가치가 현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금 30 달란트는 1 톤이 넘는 양으로 현 시세로 6,900 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은의 저평가된 시세로 계산하더라도 7,700 만 달러, 77 밀리언 달러입니다. 아마 당시 은의 가치를 감안하면 1 억 달러가 훌쩍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엄청난 양의 공물을 마련하기 위해 성전 곳간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왕하 18:15). 그렇게 성전 창고까지 털어도 금은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벗겨냈습니다.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왕하 18:16).

나귀가 보통 100 킬로그램 정도 운반하고, 낙타는 보통 200 킬로그램 정도 운반합니다. 지금 앗수르 왕에게 바치는 은금의 양이 11 톤이 넘습니다. 이만큼의 양을 실으려면 낙타 40 마리, 나귀 40 마리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낙타와 나귀를 끌고 가는 인부와 호위 병사까지 감안하면,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라기스로 가는 행렬은 매우 길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행렬을 지켜보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제 앗수르 군대가 퇴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허나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렇게 성물까지 산헤립에게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대가는 컸습니다. 애굽에 보낸 재물과 보물도 산헤립에게 보낸 것과 같은 양은 아니지만, 엄청난 양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 메소포타미아로 보낸 양이 낙타 열 필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창 24:10). 낙타 열 필에 보물과 재물을 싣고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 이 정도 예물을 보냈다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애굽왕 바로에게 동맹을 맺기 위해 보낸 예물의 양은 어땠겠습니까?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규모의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게 재물과 보물을 바치고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게 배신을 당한 유다는 산헤립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왕하 18:17). 퇴각할 줄 알았던 앗수르 군대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것입니다. 산헤립은 은금만 끌궤하고 대규모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치르지 않아도 될 엄청난 양의 비용을 치르고도 결국 예루살렘 성은 앗수르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낙타와 나귀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예루살렘 주민들은 앗수르 군대가 퇴각할 줄 알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집니다. 이를 후면 그 무시무시한 앗수르 군대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자 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주어집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사 30:15).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잠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1 세대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말과 병거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백성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 다행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모세의 말을 믿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Way Maker 되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출 14:21).

헌데 영화처럼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자마자 바닷물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칠 때 생겨난 것은 길이 아니라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새벽에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밟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40 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출애굽 1 세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헌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잠잠히 있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사 30:16). 그래서 말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허나 이렇게 말을 타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나 부유한 귀족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노새나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갔고, 평민들은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소수였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사 30:17).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었던 애굽 군대는 오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도 다 도망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울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뿐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사 30:19). 이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이킨 후에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우상들을 던져 버렸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사 31:7).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은 우상, 금 우상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8 절). 예루살렘을 포위한 앗수르 군대를 칼로 멸하셨습니다. 허나 이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닙니다. 앗수르 군대는 인간이 찌르지 않은 칼에 찔려 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 19:35). 천사의 칼에 의해 앗수르 군대 185,000 명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상들을 집어 던지며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상을 던지는 회개하는 자가 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사 31:5-8)